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및 보호 대책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보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도권 지역 영유아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53.1%였으며,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2.27세였다. 한편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가 유아 2.86세, 영아 0.84세로 더 이르며 영아가 유아보다 스마트폰을 더 긴 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길었고, 스마트폰 노출 시기도 빨랐다.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보호 대책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내용, 부모에게 접근해야 할 부분, 사회적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의 3가지로 구분하여 모색하였다.

1. 들어가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일과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미디어매체(TV, 컴퓨터, 휴대폰·스마트폰 등) 이용과 연관되어 있다. 미디어 매체 이용 연령은 빠르게 하향화되어 취학전 영유아도 교육과 놀이 등을 위한 미디어 매체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

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3)¹⁾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비율)은 7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 3~5세 유아만의 이용률은 72.8%이고, 유아 인터넷 이용자수는 1,020천명(전년대비 140천명 증가)으로 전년대비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가구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2년

* 본고는 2013년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이정림·도남희·오유정의 기본연구 보고서 '영유아의 미디어 매체 노출실태 및 보호대책'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2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기준 63.7%로 전년도의 31.3%에서 1년간 2배 이상이 증가되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²⁾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2013년 6월 25일자 미국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 SA). 이러한 가구원의 스마트폰 보유는 취학전 아동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이 영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장시간 미디어 이용은 신체적으로는 시력저하, 수면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산만함, 대인관계문제, 폭력성 발현 등 정신적·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병재, 2008; 강신영·조준오, 2007; 최두진 외, 2009에서 재인용).³⁾ 이용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중독적 이용 위험이 높으며 초기 발달 시기에 나타난 문제일수록 성인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김주연, 2002).⁴⁾ 한편, 연령에 따라 미디어 매체 이용에 관련된 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영유아에 특화된 미디어 매체 이용 실태 조사 및 관련 요인에 따른 예방 및 보호 대책이 요구된다.

아동의 미디어 매체 이용과 관련한 선행 조사 및 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상의 연령에 치중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반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만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 급속도로 미디어 매체 노출의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고, 특히 스마트폰의 이용 연령이 하향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스마트폰 이용이 시작될 것으로 추측되는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스마트폰 이용 연령의 하향화와 영유아 시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및 노출실태를 파악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실태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실태,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및 부모의 개입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역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0명을 표집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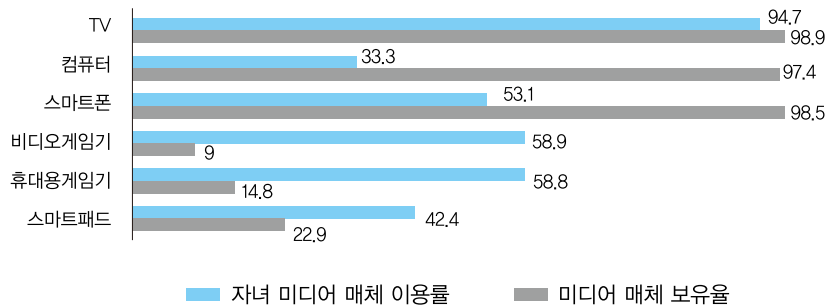
가. 가정 내 미디어매체(스마트폰 포함) 보유율 및 영유아 이용률

가정 내 스마트폰의 보유율은 98% 이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이용률은 68.4%로 영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현대의 스마트폰 보급 증가로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3). 2012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3) 최두진·김동일·김용년·고영삼·정여주·엄나래·허은·방나미·김은정(2009).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2단계 고도화 연구. 서울: 한국정보진흥재단.

4) 김주연(2002). 초등학교생의 인터넷 중독 경향과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그림 1] 가정 내 미디어 매체 보유율, 영유아 이용률

나. 영유아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

응답 대상 1세 영아 중 30.2%가 1세 이하에 스마트폰을 최초로 이용했으며, 2세 영아의 경우는 47.9%가 2세 이하, 3세의 경우 61.8%가 3세 이하, 4세의 67.0%가 4세 이하, 5세의 74.7%가 5세 이하에서 최초 이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 시기의 평균을 살펴보면 2.27세로 만 3세가 되기 전인 영아시기에 이미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로 나눠서 비교했을 때 유아 2.86세, 영아 0.84세로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가 더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 대상 영유아의 출생연도가 2008년~2013년인 점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이 2010년경에 시작된 것을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표 1 참조).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시간 비교는 다음과 같다. 0세는 이용시간이 33.45분, 1세는 32.84분, 2세 29.54분, 3세 34.42분, 4세 28.65분, 5세 24.81분으로 나타났다. 최초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다.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시간

영유아 자녀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주중과 주말 이용 시간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주중 전체 평균 이용시간은 31.65분, 영아 평균

<표 1> 최초 이용 시기

단위: %(명)

연령	최초 이용 연령							계(수)	평균	전체	2.27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0세	10.7	-	-	-	-	-	10.7(9)	0.00	영아 평균	0.84	
1세	12.1	18.1	-	-	-	-	30.2(55)	0.60			
2세	8.5	27.1	12.2	-	-	-	47.9(90)	1.08			
3세	1.2	14.5	22.5	23.7	-	-	61.8(107)	2.11	유아 평균	2.86	
4세	2.2	3.9	15.6	31.3	14.0	-	67.0(120)	2.76			
5세	1.0	4.1	6.7	21.6	27.3	13.9	74.7(145)	3.50			

〈표 2〉 자녀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시간(1일 기준)

단위: 분

연령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계
0세	0.00	300.00	33.45	45.98	55
1세	0.00	240.00	32.84	29.93	124
2세	0.00	120.00	29.56	22.06	103
3세	0.00	240.00	34.42	36.47	139
4세	0.00	120.00	28.65	19.76	78
5세	0.00	60.00	24.81	17.45	27

〈표 3〉 영유아 일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단위: %(분)

구분	주중 일일 평균				주말 및 공휴일 일일 평균			
	평균	표준편차	계	t	평균	표준편차	계	t
전체	31.65	30.85	100.0(526)		39.05	36.40	100.0(526)	
영아	32.53	37.19	100.0(154)	0.42	37.19	38.94	100.0(154)	-0.75
유아	31.28	27.85	100.0(372)		39.82	35.33	100.0(372)	

32.53분, 유아 평균 31.28분으로 나타났다. 주말 이용시간은 전체 평균 39.05분, 영아 평균 39.19분, 유아 평균 39.82분으로 나타나서 주말 평균 이용시간이 주중 평균 이용시간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영아 이용이 유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노출 연령이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대중교통 1.7%, 공공시설 1.1%, 기타 0.6%, 유모차 안 0.2% 순서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기기는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 다음으로는 카페 및 식당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장소

단위: %(명)

구분	전체	영아	유아
전체	100.0(947)	100.0(429)	100.0(518)
가정	71.9	71.4	72.0
카페 및 식당	9.5	11.0	8.9
개인용 승용차	7.8	5.8	8.6
다른 사람(친구 등)의 집	4.9	4.5	5.1
백화점, 마트, 쇼핑몰	2.3	2.6	2.2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등)	1.7	2.6	1.3
공공시설(도서관, 우체국 등 관공서)	1.1	1.9	0.8
기타	0.6	-	0.8
유모차 안	0.2	-	0.3

주: 복수응답임.

라.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장소

〈표 4〉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장소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 71.9%가 가정에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다음으로 카페 및 식당 9.5%, 개인 승용차 7.8%, 다른 사람의 집 4.9%, 쇼핑몰 2.3%,

마.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이유

영유아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녀가 좋아해서가 70.9%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주된 사용 이유로는 영아의 12.3%, 유아의 12.6%가 또래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이용하였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은 또래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유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매체의 노출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감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표 5 참조).

〈표 5〉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구분	단위: %(명)		
	전체	영아	유아
전체	100.0(526)	100.0(154)	100.0(372)
자녀가 좋아해서	70.9	70.8	71.0
또래와 공감대 형성	12.5	12.3	12.6
정보검색 등 지식 습득	4.8	1.3	6.2
습관적 사용	6.1	9.1	4.8
기타	5.5	6.5	5.1
모름/무응답	0.2	-	0.3
$\chi^2(df)$		9.50(5)	

〈표 6〉 영유아-학부모 스마트폰 이용 상관관계

구분	주양육자 스마트폰 이용 시간
영아-스마트폰 이용 시간	0.21**
유아-스마트폰 이용 시간	0.24**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	-.15**

주: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일일 스마트폰 이용 평균시간임.

** $p < .01$.

3.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 및 부모의 개입

가.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관계

주양육자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양육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주양육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영유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자녀 스마트폰 최초 이용 시기는 주양육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주양육자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가 스마트폰에 일찍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추정해볼 수 있다(표 6 참조).

나. 자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부모 의견 및 이용 제한

자녀의 스마트폰 노출 및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미디어 중독과 노출에 대한 위험’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7 참조).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프로그램 및 시간제한에 따른 자녀 스마트

〈표 7〉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명)

문항	전체	영아	유아
전체	100.0(220)	100.0(70)	100.0(150)
미디어 중독에 대한 위험	40.0	35.7	42.0
유해 콘텐츠 접근가능성	14.5	14.3	14.7
인지발달에 저해	12.7	15.7	11.3
신체 발달 저하	13.2	8.6	15.3
사회성 발달 저하	11.8	17.1	9.3
광고에 과도하게 노출	4.5	2.9	5.3
개인신상 정보 노출	3.2	5.7	2.0
$\chi^2(df)$		8.03(6)	

〈표 8〉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제한 여부에 따른 자녀 스마트폰 이용시간

단위: 분

제한 여부	프로그램 제한				시간 제한			
	평균	표준편차	계	t	평균	표준편차	계	t
제한	31.50	28.79	266	-2.41*	31.81	29.13	267	-1.87
제한하지않음	45.50	27.90	27		42.85	25.34	26	

*p < .05

폰 이용시간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은 프로그램 제한을 하는 집단은 31.5분, 하지 않는 집단은 45.50분으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에 프로그램 제한을 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적었다. 시간제한은 31.81분, 제한하지 않는 집단은 42.85분으로 11분 정도의 사용시간 차이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표 8 참조).

다. 자녀 미디어매체 이용 부모 교육

자녀의 미디어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부모의 88.8%는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 학부모는 85.7%, 유아 학부모는 91.4%로 나타나 유아의 학부모에서 미디어매체 이용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9 참조).

〈표 9〉 자녀의 미디어매체 이용에 대한 부모 교육 필요성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④+⑤	계	$\chi^2(df)$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전체	1.7	2.7	6.8	64.1	24.7	88.8	100.0(1,000)	9.01(4)
영아	2.2	3.1	9.0	61.0	24.7	85.7	100.0(454)	
유아	1.3	2.4	4.9	66.7	24.7	91.4	100.0(546)	

〈표 10〉 부모의 미디어 교육내용 인지여부에 따른 자녀 스마트폰 이용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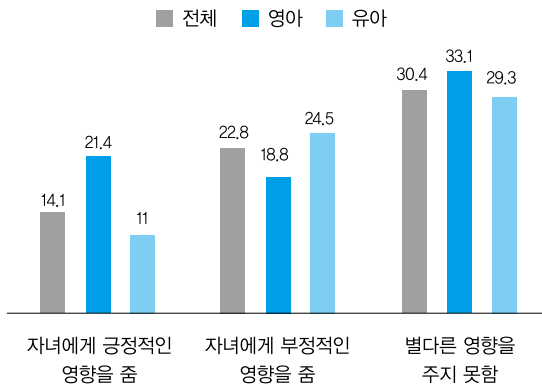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계	t
정서발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모른다	38.30	36.13	191	2.43*
안다	31.12	24.94	332	

* $p < .05$

부모의 미디어 교육내용 인지여부에 따른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의 차이를 t-검증으로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미디어 사용이 정서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실태 및 예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거나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거나 잘 모르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적었다(표 10 참조).

라. 부모의 영유아 스마트폰 관련 의견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그림 2] 스마트폰 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모두 준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함 30.4%,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줌 22.8%, 긍정적인 영향을 줌 14.1%였다(그림 2 참조). 연령별로 유아 24.5%가 영아 18.8%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보였으

며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유아 11.0%, 영아 21.4%로 차이를 나타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정책적 요구

자녀의 건전한 미디어매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건전한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전체의 4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영유아 미디어 예방교육에 대한 국가적 홍보 강화' 18.3%, '부모용 자녀 미디어 사용 지도 가이드라인 제시' 18.0%, '영유아 사용 미디어에 대한 부모 승인 강화' 17.1%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제나 법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함'에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88.8%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필요하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는 11.2%로 조사되었다(표 12 참조).

(표 11) 자녀의 건전한 미디어매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요구되는 것

단위: %(명)

문항	전체	영아	유아
전체	100.0(1,000)	100.0(454)	100.0(546)
건전한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6.4	47.1	45.8
영유아 미디어 예방교육에 대한 국가적 홍보강화	18.3	17.4	19.0
부모용 자녀 미디어 사용 지도 가이드라인 제시	18.0	18.7	17.4
영유아 사용 미디어에 대한 부모 승인 강화	17.1	16.5	17.6
모름/ 무응답	0.2	0.2	0.2
$\chi^2(df)$		0.89(4)	

(표 12) 자녀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제 필요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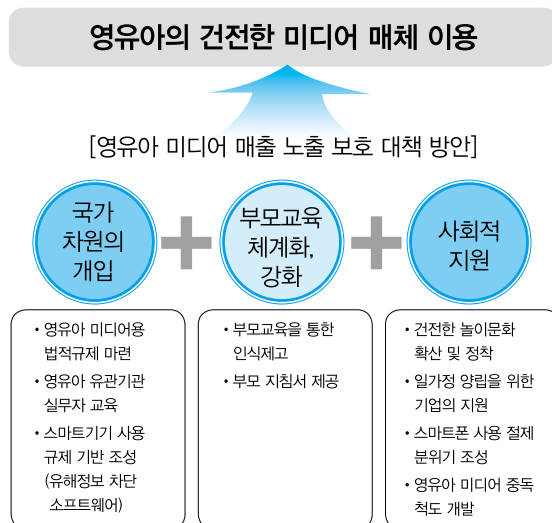
구분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계	$\chi^2(df)$
전체	88.8	11.2	100.0(1,000)	
영아	86.1	13.9	100.0(454)	5.99(1)*
유아	91.0	9.0	100.0(546)	

* $p < .05$

4.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보호 대책 방안

미디어 이용을 위한 부모 지침서 제공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사회적 지원 방안으로, 영유아를

이상에서 나타났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영유아 스마트폰 노출 보호 대책에 대한 방안을 국가적 차원의 개입, 부모대상의 접근, 사회적 차원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으로는 영유아 미디어 매체 이용의 법적 규제 마련,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및 관련 평가 항목 추가,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부모교육 체계화 및 강화 방안으로, 부모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 제공 및 영유아의 건전한



[그림 3] 영유아 미디어 매체 노출 보호 대책 방안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및 정착,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지원 및 협조,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영유아 미디어 중독 척도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

1) 영유아 스마트폰 이용의 법적 규제 조항 마련

현재 영유아의 미디어매체 노출과 관련된 규제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신은 물론 방송, 영상의 경우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규제조항은 있으나 영유아 관련 규제조항은 없다. 최근 영유아의 스마트폰 사용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커지고 있으나 아직 법적 측면에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현재는 법적인 개정보다는 아동/청소년 보호의 연장선에 있어 정책적 측면에서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2)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 교육 실시 및 관련 평가 항목 추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육아지원기관, 유아대상 학원과 같은 기관의 기관장 및 교사 대상으로 건전한 스마트폰 매체 이용을 위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하는지에 관한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기관의 기관장이나 교사가 반드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도

실시하도록 한다.

영유아 관련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위험 및 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이나 유치원 평가 시 영유아의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을 조장할 수 있는 유아대상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작성하도록 한다.

3) 스마트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강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경우 우선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받을 수 있음), 부모 관리 감독 하에 기기를 이용하도록 하며,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도록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단순 즐거움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한에서만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나. 부모교육 체계화 및 강화

1) 부모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부모 교육 제공

영유아 시기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인식과 태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선행연구들과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교육은 부모 대상으로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바쁜 부모들을 위해 이러닝(e-learning)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부모 지침서 제공

영유아의 건전한 미디어 이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안과 교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디어 사용이 자녀의 신체건강과 정서발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예방’, ‘부모가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 ‘미디어 매체 적정 이용 시간의 기준’, ‘유해 프로그램, 사이트, 앱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이용방법’, ‘영유아의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와 치료, 예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다. 사회적 지원 방안

1) 영유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정착

영유아가 미디어 매체를 통한 놀이 대신 신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야외 활동 프로그램,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문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 캠프 등의 문화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역사회의 인력과 자원 등을 연계 및 활용하여 지자체, 기업, 종교단체 등에서 이러한 행사를 주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에서의 지원 및 협조 필요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

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에서 매월 정시 퇴근을 독려하는 패밀리데이(family day)의 활성화 및 기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에서도 이러한 협조가 잘 이루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협조를 더욱 유도하여야 한다.

3)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일상생활 중 통화, 문자 송수신 외 스마트기기 사용을 일정시간 절제하는 스마트오프데이(smart-off day) 지정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4) 영유아 미디어 중독 척도 개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 노출 및 이용 관련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았던 이유로 간과되었던 영유아 미디어 노출 실태 정도가 본 연구결과 다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영유아 미디어 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척도가 개발될 때, 미디어 중독의 위험에 처한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